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 영향요인*

유은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Factors Affecting the Community Satisfaction in Rural Residents

Eun-Young You**

Quality of Rural Life Research Cen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classify the residents of rural area into some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ir community satisfaction by decision tree model. The variable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grouping rural residents according to community satisfaction is income. However, it appears that the variable of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activities can weaken their influences. The second most satisfying group is the group of people who are lower-income and active in community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 group of people who are high-income and inactive in community activities are included to unsatisfying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can be a major factor in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rural communities. What is noteworthy is that marital status is used as a major variable to classify the rural residents into some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mmunity satisfaction. This suggests that the issue of marriage is still a major problem in rural communities.

Key words: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community, Community participation, Decision tree model

1. 서론

한국의 농촌은 그동안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를 겪어왔다. 그런데 최근 농촌의 인구수와 인구 구성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결과, 읍 지역의 인구수가 2010년 420만 명에서 2015년 46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면 지역의 인구수도 2010년 455만 명에서 2015년 47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8.0%에서 2015년 18.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엔 귀농귀촌인의 증가와 외국인의 증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귀촌 가구 수는 2013년

28만838가구에서 2015년 31만7,409가구로 증가하였고, 40대 이하의 귀촌 가구 수도 2013년 12만9,879가구에서 2015년 14만 2,029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 외국인의 수도 2010년 12만2,000명에서 2015년 37만7,000명으로 5년간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인구총조사). 이와 같은 농촌 지역의 인구 추이 변화는 농촌이 이전보다 다양한 사람에게 대안적인 삶의 터전이자 정주 공간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연구는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만족(Community satisfaction)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요어: 지역사회 만족, 농촌 지역사회, 지역사회 참여, 의사결정나무모형

*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신저자(유은영) 전화: 061-820-2290 e-mail: wordtime84@krei.re.kr

개인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로, 즉 주민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Bernard, 2015; Matarrita-Cascante, 2010; Potter, & Cantarero, 2014). 국내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거주하는 곳에서의 삶에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2013년 42.3%에서 2017년 30.5%으로 크게 하락하였다(유은영, & 박지숙, 2017). 이처럼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간다면, 최근 농촌 지역에서 관찰된 인구 증가 추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낮은 지역사회 만족은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Fredrickson et al., 1980; Heaton et al., 1979; Mellander, Florida, & Stolarick, 2011; Schulze, Artis, & Beegle, 1963; Zuiches, 1981). 최근 농촌 인구의 긍정적인 변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 또는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가 이어져왔으나 주로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강현정, 2009; 배진희, 2004; 심미경, & 박정모, 2002; 장비연, 백인립, & 김홍주, 2014; 전희정, & 김상기, 2014; 정규형, & 최희정, 2016). 기존 연구에선 농촌을 고령화된 사회이자 노인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보고,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최근의 농촌 인구 구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농촌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요약하면, 이 연구에선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전국의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만족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첫째, 선행연구에서 밝혀왔던 지역사회 만족의 영향 변수를 가지고 농촌 주민을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집단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하였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을 향상시키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2.1.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고 공동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적인 합일체를 의미한다(Konig, 1968). 만족은 개인이 가진 열망과 현실에서의 성취 간의 차이 정도를 의미한다(Campbell, 1981). 종합해보면 지역사회 만족도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개인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Bernard, 2015; Matarrita-Cascante, 2010; Potter, & Cantarero, 2014).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만족을 폭넓은 개념인 삶의 질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Allem, Long, & Perdue, 1987; Marans, & Rodgers, 1974). Marans, & Rodgers(1974)는 개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그의 개인적인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사회 만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과 정책의 측면에선, 개인의 지역사회 만족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족과 거주지 결정의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다(Fredrickson et al., 1980; Heaton et al., 1979; Mellander, Florida, & Stolarick, 2011; Schulze, Artis, & Beegle, 1963; Zuiches, 1981).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어 과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특히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Filkins, Allen, & Cordes, 2000).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학술적인 관심을 받았다. 지역사회 만족은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관계가 압축된 깊고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Goudy, 1977), 다양한 요소들이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지역사회 여건 변수, 지역사회 참여와 주민 간의 결속력 등의 사회적 변수, 소득이나 직업 등의 경제적 변수, 거주 기간이나 학력 등의 개인특성 변수, 인구 규모 및 산업화 등의 환경적 변수 등이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 변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일치하기 보단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Potter, & Cantarero, 2014; Theodori, 2001).

2.1.1. 지역사회 여건 변수

지역사회 만족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초기 연구들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나 쾌적한 환경 등과 같은 지역사회 여건과 관련된 변수에 초점을 맞추었다. 많은 연구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여건은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요소가 아니며, 그보다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Allen, & Beattie, 1984; Bernard, 2015; Marans, & Rodgers, 1974; Matarrita-Cascante, 2010). Bernard(2015)의 연구에선 지역의 여건에 대한 주민의 주관적인 평가와 지역사회 여건의 객관적인 상태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제시했다. Allen, & Beattie(1984)의 연구에선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도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하는 적절한 요인이 아니라고 제안했다.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은 지역사회 여건 중에서 공공교육의 질에 대한 주민의 평가가 지역사회 만족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Christenson, & Taylor(1983)은 등급별로 서비스와 병원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최영철(2014)은 주거, 치안, 교통, 도시환경 등의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심리적인 요인을 거쳐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박덕병, 조영숙, & 이민수(2006)의 연구에선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사회 여건 변수는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만족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진 못하고 있다(Goudy, 1977). Rojek, Clemente, & Summers(1975)은 의료·공공·생활·교육 여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 간에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Zehner, Chapin, & Stuart(1974)의 연구에서는 경찰보호, 학교, 쇼핑 시설, 깨끗한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가 응답자의 지역사회 만족도 차이의 18%만을 설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Campbell, Converse, & Rodgers(1976)연구에서는 학교, 도로, 공원, 기후 등의 9개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응답자의 지역사회 만족도 차이의 19%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만족을 설명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여건 외에 다른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1.2. 사회적 변수

Goudy(1977)는 지역사회 만족에 대한 연구가 설명력이 약한

지역 여건 변수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변수도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 북아이오와 지역 내의 소도읍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Goudy(1977)의 연구 결과, 지역사회 여건 변수보다 사회적 변수인 주민 참여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 등이 지역사회 만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또는 이에 대한 주민의 평가보다 사회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Allen, Long, & Perdue, 1987; Allen, Long, & Perdue, 1991; Deseran, 1978).

Goudy(1977)의 연구를 계기로 지역사회 만족에 대한 사회적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미영(2008), Filkins, Allen, & Cordes(2000), Sofranko, & Fliegel(1984)의 연구에서는 주민 간의 친밀도가 높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서로를 지지할수록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irgy, & Cornwell(2002)의 연구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지역사회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we(201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네트워크 구조가 지역사회 만족도의 예측요인이라 제시하며, 응집력이 높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지역사회일수록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Bernard(2015)와 Fitz, Lyon, & Driskell(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친밀한 관계를 갖는 주민이 많고, 지역사회 공공의 일에 자주 참여할수록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arrita-Cascante(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환경의 변화를 겪은 2개의 농촌 지역사회를 비교했다. 관광 산업이 개발되기 이전부터 주민 간의 사회적 응집력이 높았고 관광 산업 발전 과정에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사회에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 이후에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더 높아졌다. 반면,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가 느슨하고 외부 기업체가 관광 개발을 주도한 지역에선, 지역사회 만족도가 오히려 하락했다. 국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귀농귀촌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미경 & 박정모, 2002; 양순미, 최규홍, & 강경하, 2009; 양순미, 2010; 황정임 외, 2011).

이처럼 사회적 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몇몇 연구에선 사회적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Filkins, Allen, & Cordes, 2000; Goudy, 1977). 그러나 이 또한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Bernard(2015)의 연구에선 사회적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이보다 지역사회 여건 변수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지역사회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Brown(1993), Matarrita-Cascante(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지만 소득, 일자리 등의 경제적 요인이 지역사회 만족과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2.1.3. 경제적 변수

소득,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경제적 변수도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연구되어 왔다. 소득이 지역사회 만족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연구(Davies, 1945)도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선 소득이 높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김하수, 2004; 배은석, 손지현, 박해궁, & 송영지, 2017; Freeman, 2001; Fried, 1984; Marans, & Rodgers, 1974; Mohit, Ibrahim, & Rashid, 2010; Olorunsola, 2012; Varady, & Carrozza, 2000). Fitz, Lyon, & Driskell(2016)의 연구에선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평균 소득도 개인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rown(1993)의 연구를 계기로 경제적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Brown(1993)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거주 지역에서 모든 서비스를 누리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여가, 다양한 서비스 등의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다. Brown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주민을 넓은 사회경제적 맥락에서의 소비자로 먼저 인식해야 하고, 그 후에 두 번째로 특정 지역의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역사회 만족은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을 바탕으로 한 높은 삶의 질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분석 결과, 경제적 변수가 환경적 변수, 사회적 변수, 개인특성 변수 등 보다 지역사회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Brown(1993)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Matarrita-Cascante(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변수보다 경제적 변수가 농촌 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이지만, Brown

(1993)과 Matarrita-Cascante(2010)의 주장처럼 변수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Filkins, Allen, & Cordes(2000)의 연구에선 지역 주민을 일차적으로 소비자라 봐야 한다는 Brown(1993)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농촌 지역 거주자는 지역사회가 가진 서비스의 질이나 상업적인 기능보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결속력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 경제적 변수보다 사회적 변수가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1.4. 개인특성 변수

성별, 나이, 학력, 거주 기간 등의 개인특성 변수 역시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개인특성 변수는 지역사회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Davies, 1945)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지역사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는 연구 결과(Bernard, 2015; Marans, & Rodgers, 1974)가 있다. 배은석, 손지현, 박해궁, & 송영지(2017)에서도 성별, 연령, 혼인 상태, 학력 등의 개인특성 변수는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여건, 사회적, 경제적 변수에 비해 지역사회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개인특성 변수의 영향에 대한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이는 많을수록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Filkins, Allen, & Cordes, 2000; Fitz, Lyon, & Driskell, 2016; Rojek, Clemente, & Summers, 1975), 학력은 낮을수록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adburn, 1969; Filkins, Allen, & Cordes, 2000; Marans, & Rodgers 1974; Miller, & Crader 1979).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덕병, 조영숙, & 이민수, 2006; Bernard, 2015; Filkins, Allen, & Cordes, 2000; Fitz, Lyon, & Driskell, 2016; Schulze, Artis, & Beelge, 1963).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65세 이상 노인 안에선, 연령이 낮을수록(배진희, 2004; 전희정, & 김상기, 2014), 학력이 높을수록(장비연, 백인립, & 김홍주, 2014) 지역사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 만족이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Miller, & Crader, 1979; Rojek, Clemente, & Summers, 1975)가 많다. 한편으로 이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몇몇의 연구에선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 거주 기간 변수와 함께 지역여건 변수, 사회적 변수 등을 모델에 추가하면 거주 기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ard, 2015; Brown, 1993; Crowe, 2010; Filkins, Allen, & Cordes, 2000; Goudy, 1977).

농촌지역을 대상으로한 Brown, Corius, & Krannich(2005)의 연구에선 급격한 산업발전으로 호황과 불황, 회복 등의 변화를 겪는 와중에도 거주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고, 여성인 주민의 경우, 일관되게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면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오랜 시간동안 주민과 지역사회 간에 형성된 애착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1.5. 환경적 변수

산업화, 인구 규모의 변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하는 변수로 연구되었다. Brown, Geertsen, & Krannich (1989)의 연구에선 농촌 지역에서 산업 발전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 오히려 지역사회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구 변화가 급격히 발생한 시기인 1982년~1984년보다 오히려 산업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인구 이동이 본격화되기 직전의 기간인 1975년~1982년에 만족도가 가장 크게 하락했다. 실질적인 인구 변화보다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예측이 지역사회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 연구와 연계하여 진행된 Brown, Corius, & Krannich(2005)의 연구에선, 그 이후 인구가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1986년~1995년 사이에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다시 회복된 것이다. 이 결과 역시 객관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주민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인식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Drew, Dollery, & Kortt(2015)의 연구에서는, 대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면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상승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규모를 넘어서면서 만족도는 다시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즉, 인구증가와 지역사회 만족도 간에 역U자형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했다. 반면 중소도시에선 인구밀도가 증가하면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tz, Lyon, & Driskell(2016)에선 일반

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지역사회 만족도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경적 변수 중 인구 규모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 각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연구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전국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정주 만족도 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¹⁾ 조사 대상은 전국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전국의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전문업체²⁾를 통해 전화 인터뷰 조사(CATI)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고, 2016년 10월부터 3주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패널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측값을 가진 표본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총 표본 수는 2,337명이고, 이 중 연구원 농업인 패널의 표본 수는 총 420명이다.

전체 표본의 19.4%가 귀농귀촌인으로 이루어져있다. 2015년 기준 농촌지역(읍·면 지역)인구 988만 명(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귀촌인 31만 명(통계청, 귀농어·귀촌인통계)의 비율이 3%인 것에 비해 과표본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농촌 인구 구성의 다양화 추세를 담고 있다는 점과, 개인특성 변수로 귀농귀촌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 데이터라 볼 수 있다.

3.2. 측정 도구

목표 변수인 지역사회 만족도는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다차원 척도를 가지고 지역사회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로 Bernard(2015), Brown(1993), Goudy(1977) 등이 있다. Goudy(1977)는 지역사회 만족을 측정하려고 3개 척도를 구축했다. 첫 번째 척도는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2) 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수행하였다.

정하는 3개 문항(생활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에 만족하는가,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만족하는가, 지역사회가 삶을 사는 데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가?)으로, 두 번째 척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측정하는 3개 문항(지역사회를 고향으로 느끼는가,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가)으로, 세 번째 척도는 지역사회의 여러 측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묻는 8개 문항(지역사회의 미래, 지역사회 리더들, 지역사회 주민의 혁신, 지역사회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Brown(1993)은 지역사회 평가(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내가 사는 지역사회를 평가하는 몇 점인가), 지역사회의 바람직성 측정(지역사회가 지난 5년 동안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였는가), 지역사회에서의 삶 평가(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등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했다. Bernard(2015)도 3개의 문항(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하였을 때, 지역사회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의 조건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지역사회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가)을 사용했다.

이와 달리 단일 문항으로 지역사회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지역사회 만족이 다양한 변수가 압축되어 있는 폭넓고 복잡한 개념(Ladewig, & McCann, 1980)이라는 점에서, 현상을 단순화하여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단일척도가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만족을 측정하는 단일 척도로는 많은 연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사용하였다(Filkins, Allen, & Cordes, 2000; Jessor, 1967; Ladewig, & McCann 1980; Theodori, 2001). 이 연구에서도 농촌 주민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지역사회 만족을 측정하고자 단일 척도를 활용하였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라는 단일 문항에 10점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설명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농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사회 여건 변수, 사회적 변수, 경제적 변수, 개인특성 변수 등 4개의 분류에 적합한 총 10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인구 규모와 산업화 등의 환경적 변수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지역사회 여건 변수는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으로 설정하였다. 지역 여건에 대한 중요성 정도가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Allen, & Beattie, 1984). 그런데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생활 서비스나 경제 활동을 위한 여건 등이 열악한 반면, 환경경관이나 공동체 여건 등에

선 주민의 만족감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 변수를 측정하려고, '4가지 지역 여건 중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건은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대해 ① 생활 서비스 여건: 주거 인프라, 교육, 보건·복지 등의 생활 서비스 여건이 잘 갖추어진 삶터로서의 지역 여건이 중요하다 ② 지역 경제력 여건: 고용 및 소득 기회, 경제 활동 여건 등 지역 경제력이 잘 갖추어진 일터로서의 지역 여건이 중요하다 ③ 문화 및 환경경관 여건: 문화체육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환경경관이 잘 정돈된 삶터로서의 지역 여건이 중요하다 ④ 공동체 여건: 주민들 사이의 교류와 친목 활동 등이 활발한 공동체의 터로서의 지역 여건이 중요하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했다.

사회적 변수로 '지역사회 참여 정도'를 설정하였다. 지역사회 참여 정도는 황정임 외(2011), Bernard(2015), Goudy(1977) 등의 연구에서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수로 검증되었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하려고, '선생님은 지역사회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①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다 ③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④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4점 척도로 답하게 했다.

경제적 변수로 '가구 연소득'과 '직업'을 설정하였다. '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변수이다. '가구 연소득'을 측정하려고,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1,999만 원/ 2,000만 원~2,999만 원/ 3,000만 원~3,999만 원/ 4,000만 원 이상' 중 해당하는 소득 범위에 체크하게 했다. 직업은 '농업/임업/어업, 자영업, 사무·관리직(관공서,회사 등), 생산/기능/노무직, 주부, 학생, 퇴직, 무직' 중 해당 사항에 체크하게 했다.

개인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거주 기간, 귀농 귀촌 여부 등 총 6개를 설정했다. '귀농귀촌 여부'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국내 농촌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3.3. 분석 방법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의사결정나무모형(decision tree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은 목표 변수가 어떤 설명 변수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설명 변수부터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표본 집단을 분류해 가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이다.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은 자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외하여 목표 변수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들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할 수 있고, 분류와 예측의 근거가 이해하기 쉬우며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민수, 최영찬, & 유병준, 2007).

목표 변수는 '지역사회 만족도'로, 설명 변수는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 '지역사회 참여 정도', '가구 연소득', '직업', '성별', '연령', '결혼 여부', '학력', '거주 기간', '귀농귀촌 여부' 등 총 10개로 설정하여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 만족도'의 경우, 전체 표본의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에 6.5점이기 때문에, 1점~6점과 7점~10점의 2개로 범주화한 범주형 변수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명 변수 중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 성별, 결혼 여부, 직업, 귀농귀촌 여부 등 5개 변수는 더미형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령, 연소득, 학력, 거주 기간,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등 5개 변수는 연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3.1. 자료의 전처리 및 규칙 설정

최초의 설문 조사 자료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설문지는 최종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그래서 이상치 제거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은 분포에 민감하지 않은 비모수적 방법이기 때문에 정규분포에 가까운 변수로 변환하는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결측치도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여 나무를 생성하기 때문에 결측치에 대한 처리도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표본수가 5,000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경우, 의사결정나무의 가지치기와 모형을 평가하려고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 set)와 유효성 검정 데이터(validation data set)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훈련 데이터로 형성된 의사결정나무와 유효성 검정 데이터로 형성된 의사결정나무를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할 만큼 표본수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활용하여 형성된 의사결정나무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형의 타당성 검토는 '위험 추정치(risk estimate)'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박준호, 김태호, & 주용진, 2011; 배정수, & 송병국, 2015; 이수경, & 이영주, 2017). 본 연구 역시,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가 총 2,337개로 훈련 데이터와 유효성 검정 데이터를 분리할 만큼 많지 않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하나의 의사결정나무를 형성

하였고, 위험 추정치를 통해 모형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알고리즘으로 Exhaustive CHAID를 사용하였다. CHAID는 카이제곱-검정(이산형 목표 변수) 또는 F-검정(연속형 목표 변수)을 이용해 분리와 병합을 반복하고 부모마디에서 2개 이상의 분리가 가능한 다지분리(multiway split)를 허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연구에서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Exhaustive CHAID는 CHAID를 개선하여 모든 가능한 조합을 탐색하고 최적 분리를 찾도록 보완한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은 '위험추정치(risk estimate)'를 통해 분류의 정확도를 판별할 수 있다.

모형추정의 최대 반복 계산 수는 100으로 설정하고 나무모형의 깊이(depth of tree)를 나타내는 최대 수준 수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가지치기의 기준으로 상위노드 숫자는 100, 하위노드 숫자는 50으로 설정하였다. 노드 분할의 유의수준은 5%, 기준은 Pearson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했다.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표본 중 남성의 비율이 57.9%로 여성의 비율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인 응답자가 전체의 39.1%로 가장 많았고, 20대인 응답자는 전체의 8.0%로 가장 적었다. 학력에선 대졸자가 전체의 42.1%로 가장 많았고, 가구 연소득을 보면 4,0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와 1,000만 원 미만인 응답자가 각각 전체의 27.2%, 2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에선 농업/임업/어업 종사자가 전체 응답자의 37.6%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21.2%), 주부(13.4%)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기혼자 비율이 81.2%로, 기혼자인 응답자가 미혼자인 응답자 수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거주 기간은 10년 미만인 응답자가 전체의 65.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10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 중에선 10~19년 거주한 응답자가 전체의 1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4.2. 분석 결과

전국의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만족도 10점 척도 조사에서 평균 만족도는 6.5점이었다. 1~6점으로 답한 응답자는 46.4%, 7~10점은 53.6%으로 7점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 비율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2,337	100.0%	전체		2,337	100.0%
거주 지역	서울	0	0.0%	학력	무학	105	4.5%
	인천/경기	255	10.9%		초졸 /중졸	505	21.6%
	대전/충청	512	21.9%		고졸	615	26.3%
	광주/전라	502	21.5%		대졸	984	42.1%
	대구/경북	447	19.1%		대학원 이상	113	4.8%
	부산/울산/경남	361	15.4%		모름/ 무응답	15	0.6%
	강원/제주	260	11.1%		1000만 원 미만	605	25.9%
성별	남성	1354	57.9%	가구 연소득	1000만 원대	321	13.7%
	여성	983	42.1%		2000만 원대	330	14.1%
연령대	19~29세	186	8.0%		3000만 원대	382	16.3%
	30대	359	15.4%		4000만 원 이상	635	27.2%
	40대	394	16.9%		모름/ 무응답	64	2.7%
	50대	484	20.7%	독신 가구	288	12.3%	
	60세 이상	914	39.1%	1세대 가구	776	33.2%	
거주 기간	10년 미만	1532	65.6%	가족구성	2세대 가구	965	41.3%
	10~19년	289	12.4%		3세대 가구	213	9.1%
	20~29년	197	8.4%		조손 가구	23	1.0%
	30~39년	128	5.5%		기타	72	3.1%
	40년 이상	191	8.2%		미성년 가족유무	있음	680
혼인 상태	기혼	1898	81.2%	직업	없음	593	46.6%
	미혼	439	18.8%		농업/임업/어업	879	37.6%
귀농 귀촌 여부	있음	454	19.4%	자영업	166	7.1%	
	없음	1883	80.6%	사무/관리직	496	21.2%	
지역 사회 참여 정도	전혀 참여 안 한다	505	21.6%	생산/기능/노무	146	6.2%	
	잘 참여하지 않는 편	682	29.2%	주부	313	13.4%	
	비교적 참여하는 편	746	31.9%	학생	37	1.6%	
	꽤 적극적으로 참여	388	16.6%	무직/퇴직	27	1.2%	
	모름	16	0.7%	기타	273	11.7%	
중요한 지역 여건	생활 서비스 여건	942	40.3%				
	지역 경제력 여건	790	33.8%				
	문화 및 환경경관 여건	302	12.9%				
	공동체 여건	295	12.6%				
	모름	8	0.3%				

〈표 2〉 지역사회 만족도 기술통계

연령별 지역사회 만족도					귀농귀촌 여부별 지역사회 만족도				
연령대	평균	1~6점	7~10점	N	귀농귀촌여부	평균	1~6점	7~10점	N
19~29세	6.3	52.2	47.9	186	그렇다	6.6	42.7	57.3	454
30대	6.4	46.2	53.8	359	아니다	6.5	47.3	52.7	1,883
40대	6.3	47.5	52.5	394	전체	6.5	46.4	53.6	2,337
50대	6.6	43.0	57.0	484					
60대 이상	6.6	46.6	53.4	914					
전체	6.5	46.4	53.6	2,337					

이 더 높았다. 연령별, 귀농귀촌 여부별 만족도 평균 점수 및 응답 비율은 <표 2>와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20대와 40대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6.3점으로 가장 낮았고, 7~10점 응답자의 비율은 20대가 47.9%로 가장 낮았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와 60대 이상이었으며, 7~10점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50대였다. 반면 40대보다 30대의 만족도 평균 점수와 7~10점 응답자 비율이 모두 더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 여부별로 살펴보면, 귀농귀촌인의 평균 점수는 6.6점, 7~10점 응답자의 비율은 57.3%로 귀농귀촌하지 않은 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만족도를 목표 변수로 한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결과의 통계적 진단을 확인해보면, 의사결정나무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분류 정확도는 59.6%로 나타났고, 오분류가 나오게 될 위험도는 추정값 0.404, 표준오차 0.010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분석 결과, 농촌 주민을 지역사회 만족도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소득(유의확률 0.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에 따라 노드1에서 노드3까지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³⁾.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만족도 점수가 7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소득이 1,000만 원대 이하인 노드1 집단과 4,000만 원 이상인 노드3 집단은 다시 지역사회 참여 정도에 따라 집단이 분류되는데, 모두 참여 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만족도 점수 7 이상의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연소득이 2,000만~3,000만 원대인 노드2 집단은 결혼 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만족도 점수 7 이상인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끝마디를 확인해보면, 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고 지역 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노드11은 다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나뉜다. 지역 경제력 여건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그 외의 나머지 여건(생활 서비스, 문화 및 환경경관, 공동체)을 중시하는 집단이 만족도 7 이상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이고 지역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노드10은 다시 결혼 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보다 만족도 7 이상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이 2,000만~3,000만 원대이고 결혼한 노드8 집단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에 따라 분류되고 지역 경제력 여건을 중시하는 집단이 그 외 나머지 여건을 중시하는 집단보다 만족도 7 이상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1,000만 원대 이하이고 지역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노드7은 성별로 다시 나뉘는데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만족도 7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1,000만 원 대 이하이고 지역 활동에 중간 정도 참여하는 노드6은 결혼 여부에 따라 분류되고 기혼자 집단이 미혼자 집단보다 만족도 7 이상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소득 1,000만 원대 이하이고 지역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노드5는 거주 기간에 따라 분류되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집단보다 2년 미만인 집단이 만족도 7 이상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4.3. 결과에 따른 논의

집단 분류에 사용된 설명 변수를 확인해보면, <표 3>과 같이 총 10개의 설명 변수 중 총 6개의 설명 변수가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연소득이 지역사회 만족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사회 참여 정도가 2번, 결혼 여부가 3번,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이 2번, 성별과 거주 기간은 각 1번씩 집단 분류의 기준 변수로 사용되었다. 끝마디를 중심으로 만족도 7 이상의 비율이 높은 집단 순으로 나열하면 <표 4>와 같다. 만족도 7 이상 비율이 51% 이상인 집단은 만족 집단으로, 49%미만인 집단은 불만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끝마디 13개 집단 중 만족 집단은 총 6개, 불만족 집단은 5개, 중간 집단은 2개이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고, 지역 활동에 적극적이고, 지역 여건 중 지역 경제력 외의 여건을 중시하는 집단으로, 해당 집단의 78.2%가 만족도 7 이상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지만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지역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집단으로, 해당 집단의 25.8%만이 만족도 7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연소득 2,000

<표 3> 지역사회 만족도에 따른 집단 분류 기준 변수

연소득	집단 분류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
지역사회 참여 정도	집단 분류 기준 사용 횟수 - 2
결혼 여부	집단 분류 기준 사용 횟수 - 3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 여건	집단 분류 기준 사용 횟수 - 2
성별	집단 분류 기준 사용 횟수 - 1
거주 기간	집단 분류 기준 사용 횟수 - 1

3) 노드4는 연소득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집단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4) 지역사회 만족도를 목표 변수로 한 의사결정나무 끝마디 집단 요약

마디 번호	표본 수	만족 7~10 비율	의사결정 나무예측	분류 기준 변수	특징
22	193	78.2%	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중요한 지역 여건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지역 활동에 적극적 지역 경제력 외의 여건 중시
16	60	68.3%	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성별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여성
18	353	63.5%	만족	연소득 결혼 여부 중요한 지역 여건	연소득 2,000만~3,000만 원대 미혼 지역 경제력 외의 여건 중시
20	256	61.3%	만족	연소득 지역 사회 참여 결혼 여부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지역 활동에 소극적 미혼
23	109	59.6%	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중요한 지역 여건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지역 활동에 적극적 지역 여건 중 지역 경제력 중시
12	55	52.7%	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거주 기간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지역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거주 기간 2년 미만
19	174	49.4%	중간	연소득 결혼 여부 중요한 지역 여건	연소득 2,000만~3,000만 원대 미혼 지역 여건 중 지역 경제력 중시
14	453	49.0%	중간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결혼 여부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지역 활동에 적당히 참여 미혼
17	124	48.4%	불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성별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남성
21	77	48.1%	불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결혼 여부	연소득 4,000만 원 이상 지역 활동에 소극적 미혼
9	185	44.9%	불만족	연소득 결혼 여부	연소득 2,000만~3,000만 원대 미혼
15	83	33.7%	불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결혼 여부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지역 활동에 적당히 참여 미혼
13	151	25.8%	불만족	연소득 지역사회 참여 거주 기간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지역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음. 거주 기간 2년 이상

만 원 미만이고 지역 활동에 적당히 참여하는 미혼 집단이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소득이 지역사회 만족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끝마디 집단에서 만족 집단에 해당하는 6개의 집단 중 3개의 집단이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이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김하수, 2004; 배은석, 손지현, 박해금, & 송영지, 2017; Fitz, Lyon, & Driskell, 2016; Freeman, 2001; Fried, 1984; Marans, & Rodgers, 1974; Mohit, Ibrahim, & Rashid, 2010; Olorunsola, 2012; Varady, & Carrozza, 2000).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환경 속에서 주민을 일차적으로 소비자로 바라봐야 하며, 이에 따라 소득 등의 경제적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주장한 Brown(1993)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즉, 이 연구에서도 소득이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들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지역사회 참여 정도는 연소득으로 집단이 분류된 다음 단계에서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 지역 활동 참여 정도, 응집력 있는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오미영, 2008; Allen, Long, & Perdue, 1987; Allen, Long, & Perdue, 1991; Deseran, 1978; Fitz, Lyon, & Driskell, 2016; sofranko, & Fliegel, 1984). 특히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역 활

동 참여가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심미경 & 박정모, 2002; 양순미, 2010; 황정임 외, 2011; Bernard, 2015; Filkins, Allen, & Cordes, 2000; Goudy, 1977; Matarrita-Cascante, 2010).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는 지역 활동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끝마디 집단 중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노드16)이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지만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으로 나타났고, 연소득이 4,000만 원 이상임에도 유일하게 불만족 집단에 포함된 집단(노드21)의 특성이 지역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미혼자 집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분류에서 지역 활동 참여 변수가 소득이 지역사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희석시킬 만큼 중요한 영향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 중에서 지역사회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마다 그 결과가 달랐다. Brown(1993)과 Matarrita-Cascante(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수보다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Filkins, Allen, & Cordes(2000)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변수보다 사회적 변수가 더 강력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선 경제적 변수가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사회적 변수가 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을 희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전히 농촌의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활동과 결속력 등과 같은 사회적 변수가 주민의 삶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의 흥미로운 점은 결혼 여부가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변수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농촌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혼 여부가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2,000만~3,000만 원 대인 집단 내에서 기혼자 집단은 만족 집단에 속하는 반면, 미혼자 집단은 불만족 집단에 속할 만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연소득 4,000만 원 이상인 지역 활동 참여에 소극적인 집단에서도 기혼자 집단은 만족 집단인 반면, 미혼자 집단은 불만족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변수 중 결혼 여부는 그동안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받지 못했다. 배은석, 손지현, 박해금, & 송영지(2017)에서는 결혼 여부와 지역사회 만족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한국 농촌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8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농촌 청년의 혼인 문제가 농촌사회의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국제 결혼 장려,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정책 등이 시도되기도 하였다(김한곤, & 박세정, 2013; 이

정화, & 박공주, 2003). 본 연구 결과는 여전히 농촌 사회에서 결혼 적령기 주민의 결혼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여건 변수도 집단 분류 기준으로 2번 활용되었다. 지역 여건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가 지역 사회 만족을 예측하는 적절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Allen, & Beattie(1984)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2번의 집단 분류에서 모두 지역 경제력을 가장 중시하는 집단이 그 외의 부분을 중시한다고 답한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지역에 제공되고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 중에서 농촌 주민의 욕구를 가장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고용 및 소득 기회, 경제 활동 여건 등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성별 변수는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노드7)을 다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여성인 집단(노드16)은 만족도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집단일 만큼 만족도가 높았으나 남성인 집단(노드17)은 불만족 집단에 속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컸다. 선행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지역사회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박덕병, 조영숙, & 이민수, 2006; Bernard, 2015; Brown, Corius, & Krannich, 2005; Filkins, Allen, & Cordes, 2000; Schulze, Artis, & Beelge, 1963). 한편으로 여성의 경우, 낮은 소득보다 지역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이 더 큰 반면, 남성의 경우,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불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기간은 연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지역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집단(노드5)을 다시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집단(노드13)은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불만족 집단인 반면,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인 집단(노드12)은 만족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주민의 경우, 소득과 지역 활동 참여가 아직 삶의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이 낮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낮추는 영향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Corius, & Krannich, 2005;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Miller, & Crader, 1979; Rojek, Clemente, & Summers, 1975). 이와 달리 본 연구 결과는 상황에 따라 거주 기간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인특성 변수에 해당하는 연령, 학력, 귀농귀촌 여부 등 3개

변수는 지역사회 만족도에 따른 집단 분류의 기준변수로 사용되지 않았다. 개인특성 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Bernard, 2015; Marans, & Rodgers, 1974)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다. 경제적 변수인 직업도 기준변수로 사용되지 않았다.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만족도 정도에 따라 농촌 주민 집단이 어떻게 분류 되었는지 확인하고, 집단분류의 기준이 되는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특히 각 설명 변수가 농촌 주민 집단을 분류하는 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확인하여, 지역사회 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지역사회 만족도에 따라 농촌 주민의 집단을 분류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하수, 2004; 배은석, 손지현, 박해공, & 송영지, 2017; Fitz, Lyon, & Driskell, 2016; Freeman, 2001; Fried, 1984; Marans, & Rodgers, 1974; Mohit, Ibrahim, & Rashid, 2010; Olorunsola, 2012; Varady, & Carrozza, 2000)와 동일한 결과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일차적으로 소비자라 바라본 후에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경제적 변수가 지역사회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Brown(1993)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참여 변수가 소득이 지역사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희석시킬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모형의 끝마디 집단 중에서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저소득층이지만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집단이었으며, 고소득층이지만 지역사회 활동에 소극적인 집단이 오히려 불만족 집단에 속하였다. Brown(1993)과 Matarrita-Cascante(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수보다 경제적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Filkins, Allen, & Cordes(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변수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선 경제적 변수가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긴 하지만, 사회적 변수 역시 경제적 변수의 이러한 영향

력을 희석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이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농촌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 자발적인 공동체가 중심이 된 소득 창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분석 결과에서 지역 여건 중 지역 경제력을 중시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농촌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농촌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농외 소득을 다각도로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완주의 로컬푸드협동조합, 영광의 여민동락공동체, 흥성군의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등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농촌을 주민이 더 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다. 농촌 주민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Matarrita-Cascante(2010)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관광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였을 때, 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정섭(2014)의 연구에서는 특히 농촌 지역 사회의 새로운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이 경제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 활동에 있어서 농촌 사회에 새롭게 유입된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통합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사회 만족도에 따른 집단 분류에 있어서 결혼 여부가 주요한 기준 변수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개인특성 변수 중 결혼 여부는 그동안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결과다. 이는 한국 농촌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농촌 사회에서 결혼문제가 여전히 주요한 쟁점 사항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농촌 지역에서의 결혼 문제는 젊은 층이 도시로 이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이영대, 2005), 이것이 농촌의 후계 세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김한근, & 박세정, 2013). 농촌의 결혼 문제가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책적으로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특성 변수인 연령, 학력, 귀농귀촌 여부 등은 집단 분류의 기준 변수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 외의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 거주 기간도 집단 분류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Bernard(2015), Marans, & Rodgers(197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특성 변수는 다른 변수에 비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거주 기간 변수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Brown, Corius, & Krannich, 2005;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Miller, & Crader, 1979; Rojek, Clemente, & Summers, 1975)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거주 기간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달리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지역사회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여건 변수에서 교육, 주거, 복지 등 각 분야별 여건의 객관적인 상태와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의 서비스 여건의 격차가 크고, 농촌 지역의 낮은 서비스 여건이 주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선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지역사회 여건 변수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지역사회의 인구 규모와 산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농촌 지역에 투입되는 정책이 주로 경제 활성화와 인구 과소화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선 이러한 정책이 투입되어 나타난 지역사회의 환경적 변화가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현정. (2009).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26.
- 김정섭. (2014). 귀농인의 사회, 경제 활동과 함의. *농촌지도와 개발*, 21(3), 53-89.
- 김하수. (2004). 지역복지 생활여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경상북도 청도군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두대학교 대학원.
- 김한곤, & 박세정. (2013). 경북지역 농촌총각의 미혼실태와 해결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724-737.
- 박덕병, 조영숙, & 이민수. (2006). 농업인의 농촌지역사회 만족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8(3), 49-74.
- 박준호, 김태호, & 주용진. (2011). 의사결정나무모형을 이용한 벤처기업의 공간적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5(1), 175-188.
- 배은석, 손지현, 박해금, & 송영지. (2017). 지역사회애착이 지역사회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1), 137-156.
- 배정수, & 송병국. (2015). 의사결정나무 분석기법을 활용한 고등학생 진로결정수준 결정요인 우선순위 탐구. *진로교육연구*, 28(4), 79-105.
- 배진희. (2004). 농촌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 자녀와 이웃지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 197-216.
- 심미경, & 박정모. (2002). 일부 도시와 농촌 지역 노인의 사회적지지, 우울, 생활 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4)
- 양순미.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 양순미, 최규홍, & 강경하. (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농업, 지역사회, 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 713-742.
-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 327-350.
- 유은영, & 박지숙. (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민수, 최영찬, & 유병준. (2007).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귀납적 학습방법에 의한 정보시스템 수용자 세분화. *Information Systems Review*, 9(1), 67-84.
- 이수경, & 이영주. (2017). 데이터마인딩을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의 연차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1-26.
- 이영대. (2005). 농촌미혼남녀 인구수 분석과 농촌청년 결혼문제.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1(1), 49-56.
- 이정화, & 박공주. (2003). 농촌청년 결혼문제의 현실과 대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2), 217-222.
- 장비연, 백인립, & 김홍주. (2014). 사회적 지원망이 농촌 지역 빈곤계층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성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1(2), 27-56.
- 전희정, & 김상기. (2014).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참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1), 317-337.
- 정규형, & 최희정. (2016). 농촌 지역 노인일자리아업 참여 기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관계와 사회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5-38.
- 최영출. (2014).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행복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28(1), 1-25.

23.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is.kr>
24. 황정임, 최윤지, 조현민, & 윤순덕. (2011).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 729-764.
25. Allen, L. R., & Beattie, R. J. (1984). The role of leisure as an indicator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community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2), 99-109.
26. Allen, L. R., Long, P. T., & Perdue, R. R. (1987). The role of leisure: Satisfaction in rural communiti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Dance*, 58(4), 33-36.
27. Allen, L. R., Long, P. T., & Perdue, R. R. (1991). Relational patterns between community dimensions and global measures of community satisfac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7(3), 331-338.
28. Bernard, J. (2015). Community satisfaction in Czech rural communities: A multi-level model. *Sociologia Ruralis*, 55(2), 205-226.
29.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IL: Aldine.
30. Brown, R. B. (1993). Rural community satisfaction and attachment in mass consumer society. *Rural Sociology*, 58(3), 387-403.
31. Brown, R. B., Corius, S. F., & Krannich, R. S. (2005). The boom-bust-recovery cycle: Dynamics of change in community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Delta, Utah. *Rural Sociology*, 70(1), 28-49.
32. Brown, R. B., Geertsen, H. R., & Krannich, R. S. (1989). Community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a boomtown: A longitudinal analysis. *Rural Sociology*, 54(4), 568-586.
33. Campbell, A. (1981).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NY: McGraw-Hill.
34.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35. Christenson, J. A., & Taylor, G. S. (1983). The socially constructed and situational context for assessment of public services. *Social Science Quarterly*, 64(2), 264.
36. Crowe, J. (2010). Community attachment and satisfaction: The role of a community's social network structur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5), 622-644.
37. Davies, V. (1945). Development of a scale to rate attitude of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10, 246-55.
38. Deseran, F. A. (1978). Community satisfaction as definition of the situation: Some conceptual issues. *Rural Sociology*, 43(2), 235.
39. Drew, J., Dollery, B., & Kortt, M. A. (2015). Can't get no satisfaction? the association between community satisfaction and population size for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75(1), 65-77.
40. Filkins, R., Allen, J. C., & Cordes, S. (2000). Predicting community satisfaction among rural residents: An integrative model. *Rural Sociology*, 65(1), 72-86.
41. Fitz, B. M., Lyon, L., & Driskell, R. (2016). Why people like where they live. *Social Indication Research*, 126, 1209-1224.
42. Freeman, L. (2001). The effects of sprawl on neighborhood social ties: An explanatory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7(1), 69-77.
43. Fredrickson, C., Heaton, T. B., Fuguitt, G. V., & Zuiches, J. J. (1980). Residential preferences in a model of migration intentions. *Population and Environment*, 3(3-4), 280-297.
44. Fried, M. (1984). The structure and significance of community satisfaction. *Population and Environment*, 7(2), 61-86.
45. Goudy, W. J. (1977). Evaluations of local attributes and community satisfaction in small towns. *Rural Sociology*, 42(3), 371.
46. Heaton, T., Fredrickson, C., Fuguitt, G. V., & Zuiches, J. J. (1979). Residential preferences, community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move. *Demography*, 16(4), 565-573.
47. Jesser, C. J. (1967). Community satisfaction patterns of professionals in rural areas. *Rural Sociology*, 32(1), 56.
48. Konig, R. (1968). *The community*. London, UK: Routledge & Kegan Paul.
49. Ladewig, H., & McCann, G. C. (1980). Community satisfaction: Theory and measurement. *Rural Sociology*, 45(1), 110.
50. Marans, R. W., & Rodgers, W. (1974).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R. W. Marans & W. Rodgers, *Metropolitan America: Papers on the state of knowledge* (pp. 311-375).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51. Matarrita-Cascante, D. (2010). Changing communities, community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 view of multiple perceived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 98(1), 105-127.
52. Mellander, C., Florida, R., & Stolarick, K. (2011). Here to stay: The effects of community satisfaction on the decision to stay. *Spatial Economic Analysis*, 6(1), 5-24.
 53. Miller, M. K., & Crader, K. W. (1979). Rural-urban differences in two dimensions of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44(3), 489.
 54. Mohit, M. A., Ibrahim, M., & Rashid, Y. R. (2010). Assessmen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newly designed public low-cost housing in Kuala Lumpur, Malaysia. *Habitat International*, 34(1), 18-27.
 55. Olorunsola, E. O. (2012). Job satisfac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staff in south west Nigeria Universities. *Journal of Emerging Trends in Educational Research and Policy Studies*, 3(1), 46.
 56. Potter, J., & Cantarero, R. (2014). Community satisfaction. *Encyclopedia of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research* (pp. 1094-1099). Dordrecht, ZH:Springer.
 57. Rojek, D. G., Clemente, F., & Summers, G. F. (1975). Community satisfaction: A study of contentment with local services. *Rural Sociology*, 40(2), 177.
 58. Schulze, R., Artis, J., & Beegle, J. A. (1963). The measurement of community satisfaction and the decision to migrate. *Rural Sociology*, 28(3), 279.
 59. Sirgy, M. J., & Cornwell, T. (2002). How neighborhood features affect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1), 79-114.
 60. Sofranko, A. J., & Fliegel, F. C. (1984). Dissatisfaction with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49(3), 353.
 61. Theodori, G. L. (2001). Examining the effects of community satisfaction and attachment on individual well-being. *Rural Sociology*, 66(4), 618-628.
 62. Varady, D. P., & Carrozza, M. A. (2000). Toward a better way to measure customer satisfaction levels in public housing: A report from Cincinnati. *Housing Studies*, 15, 797-825.
 63. Zehner, R. B., Chapin, F., & Stuart Jr. (1974). *Across the city line: A white community in transition*. Lexington, KT: Lexington Books.
 64. Zuiches, J. J. (1981). Residential preferences in the United States. In A. H. Hawley & S. M. Mazie (Eds.), *Nonmetropolitan america in transition* (pp. 72-115).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Received 01 July 2017; Revised 25, February, 2018; Accepted 26 March 2018



Eun-young You is a Researcher of Quality of Rural Life Research Cen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rural development and quality of rural life.

Addres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601,
Bitgaram-ro, Naju-si, Jeollanam-do, South
Korea
e-mail: wordtime84@krei.re.kr
phone)82-61-820-2290